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8차 회의

1. 일 자 2009년 3월 2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전 한 백 금융결제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정 대 화 법규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6호 — 2008년도 연차보고서(안)>

(1) 2009년 3월 12일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16호 - 「2008년도 연차보고서(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

됨에 따라 주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2008년도 연차보고서(안)」는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이에 대응한 당행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독자 친화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첫째, GDP, 경상수지 등 주요경제지표를 전년과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과거 위기시와 비교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음. 둘째, 기준금리의 큰 폭 인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및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 당행의 시장안정 노력을 강조하였음. 셋째,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내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최근 확충된 통계의 수록을 늘렸음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후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첫째, 2008년중 경제상황과 정책 노력이 충실히 설명되도록 수정·보완하였음. 지난해 11월의 환율 급등세에 대응한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 설정과 목표운용방식 재점검 업무를 총설에 추가하였음. 또한 은행 예대금리차의 경우 연중 변동추세를 추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2009년 4월 30일에서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둘째, 보고서 표현의 명확성과 논리성을 제고하였음. GDP 성장률 하락의 원인중 하나로 열거되었던 ‘고용사정 악화’를 삭제하여 인과관계의 혼동을 방지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증가에 그친 이유로 제시된 ‘임금 상승세 둔화’를 임금 이외에 이윤 등 여타 소득 요인까지 포괄하도록 ‘경기 둔화’로 변경하였음. 또한 주요국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지난해 4/4분기 추이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채권거래규모 증가 내용도 추가하였음

(2)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8년도 연차보고서(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17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3월)(안)〉

(1) 2009년 3월 12일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17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3월)(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첫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응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실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음. 둘째, 금융·경제동향(제Ⅰ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및 세계경제 동반침체 현상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악화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음. 셋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실적(제Ⅱ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신용공급 제약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조치 등을 충실히 기술하였음. 넷째, 경제전망(제Ⅲ장 제1~3절)은 작년 12월의 조사국 전망치에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후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첫째, “개요” 부분에서 당행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기술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이 외화대출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음. 둘째, 금융시장 동향 부분에서 지난해 하반기 들어 신용위험을 우려한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을 뚜렷하게 기술하였음. 셋째, 지난해 12월중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의 하나로 정부와 당행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기술시 그간 당행의 신용경색 해소 노력과 최근 다소 개선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을 수정하였음. 다섯째, “본문” 부분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최근 전망치를 반영하고 환율 및 소비자물가 동향 표현을 수정하는 한편 정책금리 목표치 공표 이후 최저치인 현 기준금리 수준과 신용해소를 위한 당행의 유동성 공급노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3월)(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19호 — 2009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9호 — 「2009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당분간 총액대출한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최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당행의 적극적 금융완화정책 및 정부의 보증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상황 악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년 2/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최근 증액된 2009년 1/4분기 한도와 동일한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09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0.0조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22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도입하는 데 맞추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예금종류에 금융기관간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예금을 신설하고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4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23호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과 결제전용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4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24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결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구축을 추진해 온 신한은금융망으
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개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4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의안 제25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2009년 2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의 금리 등 세부조건을 정하여 제1회 대출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인수채권이 신종자본증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제1차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집중 희망한 데 주로 기인하며 다음 회차부터는 후순위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기본적인 목적이 부실자산 등의 위험이 있는 은행에 대해 정책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은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식의 자금운용은 펀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처음 구상할 때에 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충실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가 출범하게 되어 그 취지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은행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제1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4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